



2026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026. 6 ~ 2027. 6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하는 순례 기도

목차

순례기도 방법 안내 _ 4

2026. 6 ~ 2027. 6 순례지 _ 6

1. 부산 대청동 본원 (1950-1953) _ 8
2. 부산 영도 청학동 세탁소 (1950-1951) _ 16
3. 부산 로로수용소 교리봉사 (1951-1952) _ 18
4. 부산 메리놀 병원 본원 (1951-1957) _ 21
5. 부산 동대신동 세탁소 (1951-1953) _ 24
6. 부산 동대신동 본원 (1953-1955) _ 26
7. 성모 보육원 (현재 아이들의 집, 1954-현재) _ 29
8. 부산 서대신동 천주교회 본원 (1957-현재) _ 32
9. 서울 후암동 학생 본원 (1953-1955) _ 35
10. 서울 흑석동 본원 (1955-1964) _ 40

11. 서울 흑석동 성 마리아 의원 _ 43
12. 교황대사관(1956-1980) _ 47
13. 서울 종로 천주교회(1957-현재) _ 48
14. 청주 성심 교아원(1953-1957) _ 51
15. 충주 교현동(구 '충주 아현 본원') 천주교회(1956-현재) _ 52
16. 충주성심학교와 충주성심재활원 _ 55
17. 충주 지현동 성심맹아학교 맹아원(1957-1987) _ 58
18. 청주 내덕동(구 내덕2동) 주교좌 천주교회(1957-현재) _ 60
19. 충주 음성 천주교회(1958-1969/1984-현재) _ 63
20. 인천 박문 여자 중·고등학교(1957-1962) _ 66
21. 양양 천주교회(1957-1968) _ 67
22. 홍천 천주교회(1957-1970/1980-현재) _ 70

기도 여정 _ 72

순례기도 방법 안내

Q1. 순례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순례기도는 목주기도를 하면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과거와 현재 사도직 파견지와 기관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Q2. 순례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2025년 설립 기념일부터 시작하여 설립 100주년인 2032년 6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2026년 올해 설립 기념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는 부산 피난 시절, 흑석동 분원 등 1950년대 사도직 파견지, 기관을 순례합니다.

Q3. 목주기도를 순례한 거리로 어떻게 계산 하나요?

목주기도 5단을 하면 5km를 순례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순례기도 두 번째인 올해는 1706km를 순례해야 하므로 하루에 6단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주기도를 통경으로 할 경우 3배, 순례 책자에 제시된 순례지를 방문하고 목주기도를 바치면 5배로 계산됩니다.

Q4. 순례기도의 결과를 제출하나요?

소책자 72쪽 표에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시와 같이 기록하십시오.

매월 URL를 통해 순례한 거리 결과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기도의 결과를 모아 회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Q5. 순례기도를 일반 신자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본회 회원뿐만 아니라 성모 자매회, 말씀의 봉사자, 후원자, 일반신자,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Q6. 벽돌은 왜 쌓는 것이고, 묵주기도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벽돌은 100주년 설립기념일 미사를 상수구리 모원에서 봉헌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그곳에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릉 본원 규모의 성전 건립을 희망하며 기도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모아 쌓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5단은 벽돌 5장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날짜	기도 (단)	거리 (km)	도착지	벽돌 수
6/27	5	5		5
6/28	5(통경)	15		15
6/29	5(순례지+묵주기도)	25		25



2026년 6월 27일 ~
2027년 6월 26일

순례지

	순례지
1	평양 상수구리 → 부산 대청동
2	부산 영도 청학동 세탁소
3	부산 포로수용소(교리봉사)
4	부산 메리놀 병원
5	부산 동대신동 세탁소
6	부산 본원(동대신동)
7	아이들의 집
8	서대신 천주교회
9	서울 학생 본원
10	흑석동 본원
11	서울 흑석동 성 마리아 의원
12	교황대사관
13	종로 천주교회
14	청주 성심 고아원
15	교현동 천주교회
16	충주성심학교
17	충주 지현동 성심맹학교 맹아원
18	내덕동주교좌 천주교회
19	음성 천주교회
20	박문여자고등학교
21	양양 천주교회
22	홍천 천주교회

주 소	거 리
부산 중구 대청동	524
부산 영도구 청학동	4
부산 영도구 해동중학교(절영로 490번길 8-22)	7
부산 중구 대청동4가 12-9	3
부산 서구 동대신3가 14번지	3
부산 서구 동대신3가 14번지	1
부산 해운대구 운봉길135	21
부산 서구 구덕로 333번길 36	23
서울 용산구 후암동 본당 근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련소 내 생활(1954.04.10.)	326
서울 동작구 흑석동186-4	7
서울 동작구 흑석동177-8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6길 19	10
서울 종로구 동순라길 8	4
충북 청주시 사천동 29-1	135
충북 충주시 봉헌로 251	67
충북 충주시 봉헌로 261	1
충북 충주시 방아길 48-19	4
충북 청주시 정원구 공향로 22번길 12	7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57번길 11	4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16	137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7	22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 54	90
	1106

1. 부산 대청동 본원(1950-1953)

평양 상수구리에서 부산 대청동으로



한국전쟁 [자료사진: Korea War ©UPI]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 중 뜻하지 않게 중공군의 막대한 병력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평양에 와 있던 서울 교구의 윤을수 신부가 1950년 12월 1일 상수구리 수녀원을 찾아와 남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렇게 사태가 긴박해지자 수녀들은 안교구장 서리와 의논하여 남하하

기로 결정하였다. 1950년 12월 2일 안 캐롤(Georg M. Carroll, M.M. 몬시뇰) 제7대 평양교구장 서리의 도움으로 17명(수련자 1명 포함)

의 수녀들이 평양 상수구리 모원을 떠나 피난길에 나섰다. 12월 3일 서울에 도착하여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원과 본가에 머무르다가 7일에 서울을 떠나 9일 부산 대청동 메리놀수녀회 수녀원에 도착했다. 그 후 12월 16일까지 남하한 회원들을 포함하여 서원 수녀 17명과 수련 수녀 3명이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메리놀회 수녀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가고 남은 대청동 수녀원에는 이미 각지에서 몰려온 피난민이 가득했다. 그중 파리외방전교회, 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들도 있었다. 우리 수녀들은 20명이나 되었고 소개장도 없었지만 메리놀회와 관계가 있다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 골롬반 신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방 하나를 더 얻었지만, 그것도 협소해 주방까지 밀려 나와 부엌 마루에서 자기도 했다. 침구도 넉넉하지 않아 평양에서부터 가지고 온 담요와 훌이불 등을 서너명이 함께 썼다. 그래도 모자라면 가르멜 수녀들방에서 밤을 보내고 오기도 했다.

선배 수녀님은 1950년 당시의 남하 일기를 남겨 후배들에게 남하하여 피난지 대청동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1950년 12월 7일 날 아침 조반을 하고 인사를 마치고 나와 미군 트럭으로 2시가 되어 영등포까지 갔다. 하느님의 안배하심인지



한국전쟁과 피난민들 [자료사진: Korea War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348336403]

기차를 기다리는 우리 일행은 실로 공교롭게도(우연히 발생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는 표현) 아무 약속도 없었으나 갈멜 수녀, 분도회 수녀, 성모회 수녀 다 합하여 40명이나 되었고, 분도회 수사 몇 명과 인솔자 비슷하게 개성 본당 신부님 한 분이 끼여서 일행에 수도자들은 무난히 우선권이냐 받은 것처럼 되어 아무도 탈 수 없는 미군 짐차를 전용하여 또다시 남하를 시작하였다. ...

불행 중 다행으로 9일 아침 8시쯤 되어 부산진에 기차는 다 왔다는 뜻이 멈추어 주었다. ... 유 신부님의 수완으로 즉시 미군 트럭이 대령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인사를 치러야 할 우리는 세 번 만에 거의 10시쯤이나 되어 메리놀 수녀원이라는 데를 들어오게 되

었다. 마침 플롬반 신부님이 머물고 계셨다. 우리는 그 신부님을 처음 뵈었다. 아무 소개장도 가지지 않은 우리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행이 너무 많아 걱정까지 드렸다. 즉시 신부님의 미사에 참여하고 장 신부님의 조카에게 조반을 대접받은 후 방 하나를 주시어 짐은 들여놓았으나 갈멜 수녀님들이 꼭 따라다니니 도저히 방 하나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자세히 알고 보니 블란스(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신부님도 몇 분 계셔서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영리하신 플롬반 신부님들이 즉시 다른 곳으로 가 주셔서 윗집으로 갈멜 수녀님들을 가지게 하고 아랫집에 한쪽을 프랑스 신부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우리가 있었다. 그러나 세속인도 방을 들썩이나 차지하고 있게 되어 사실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야 했다. 날이 갈수록 피난민은 쏟아져 들어오고 ...

방들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주방까지 밀려 나와 부엌 마루에서 취와 함께 자야만 할 지경까지 되었다. 물론 식기(그릇) 하나 없고 깡통이 아니었다면, 또 메리놀 수녀님의 얼마 안 되는 그릇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뻔하였는지 참으로 한심하였었다.

잠시 평양을 떠나 있으면 될 줄 알고 빈손으로 떠나온 수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방으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털장갑



피난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바느질과 손수건에 십자수를 놓는 모습

을 짜기도 하고 수를 놓은 손수건을 만들어 미군에게 팔기도 하였다. 손수건이 인기를 끌어 수녀들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실을 세며 수를 놓았다. 미군 부대의 빨래도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물은 식수로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퍼 놓았다가 썼다. 다림질은 연탄불에 무쇠 다리미를 달구어서 했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전기를 쓰지 않는 밤에는 전기 다리미도 사용했다. 힘든 노동으로 미사 도중에 쓰러지는 수녀도 있었다.

대난지에서의 서원갱신, 첫서원, 기도생활 재개

1951년 1월 6일 메리놀회 길(Patrick H. Cleary, M.M.) 신부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 중에 김 릿다(금자) 수녀와 홍 글라라(명선) 수녀가 서원을 갱신했다. 이 안드레아 수녀와 강 벨라뎃다(미호) 수녀도 종신

서원을 연기하고 서원을 갱신했다. 1월 16일에는 서울에 있던 안캐를 몬시놀리 부산에 내려와 수녀들은 아버지를 만난 안도감으로 기뻐했다. 평양교구 소속으로 남하한 윤공희(빅토리노) 신부와 장선홍(라우렌시오) 신부도 따로 숙소를 마련할 때까지 함께 머물기로 했다.

주위 환경이 조금씩 안정되자 1951년 3월 2일 오랜만에 월피정을 하였다. 4월부터는 전쟁과 피난으로 인한 영신 생활의 굶주림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장선홍 신부로부터 주 1회 강화를 들었다. 6월 18일에는 오기선 신부를 초청하여 주년피정을 했다. 6월 27일 설립기념일에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첫서원식이 거행되어 남하한 수련자 3명이 첫서원을 했다. 1949년에 홍용호 주교가 피랍되어 종신서원이 연기된 제1회 첫서원반 수녀 5명은 세 번째로 1년간 서원을 갱신했다.

1952년 1월 19일부터는 강현홍(요한) 신부로부터 주 1회 교리와 영성 강화를 듣기로 했다. 병원과 포로수용소, 주일학교 등 소임지에 나가는 수녀들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오후로 시간을 정했다.

본회 본원 신축(대청동 메리놀 병원 경내), 수련소 재개와 종신서원

메리놀 병원의 규모가 차츰 커지면서 본회 수녀들이 계속 병원 경



부산 대청동 수녀원: 서원 수녀들과 지원자들

내에 머물기가 어려워졌다. 수녀들은 온전한 공동생활을 위해서도 거처를 따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중 메리놀 수녀회로부터 병원 경내의 뒷산 40여 평을 받아서 1951년 8월 3일부터 터를 닦기 시작했다. 9월 5일에는 미군 부대 기지 성당(수녀들이 주말마다 성가를 부르러 가기도 함)의 군중 신부가 건축비로 3천 달러를 기부했다. 1951년 11월 8일, 새집이 완성되어 안 캐롤 몬시놀이 축성해 주었다. 9일, 수녀들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신축한 본원으로 짐을 옮겼다.

195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축일을 맞이하여 평양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김 수산나(벨베뚜아 수녀), 이 베로니카(글로리아 수녀), 강 마르타(로올라 수녀)가 입회함으로써 수련소가 재개되었다.

1952년 9월 12일에 제1회 첫서원자 5명이 안 캐롤 몬시놀의 주례로, 마침내 기다리던 종신서원을 하였다. 곧이어 강 벨라멧다 수녀 외 4명의 종신서원도 준비되었다. 1952년 12월 27일부터 한공렬 베드로 신부 지도로 피정을 하고, 1953년 1월 5일에 제2회 종신서원식을 거행하였다.



**성모의영원한도움이신수녀원. 1952.
제1회종신허위자일동기념. 9.12**

1953년 1월 5일, 전쟁으로 미뤄졌던 제1회 종신서원식:
강 베드로(성효) 수녀, 도변 파물라(渡邊末子)수녀,
허 코오르 수녀, 이 앙네스(금주) 수녀, 오 다위(귀봉) 수녀

2. 부산 영도 청학동 세탁소 (1950-1951)



영도세탁소: 난민 구호사업으로 영도 청학동에 미군부대 빨래를 위한 세탁소 개설

부산으로 피난한 수녀들은 영도 청학동에 분원을 설치하였다. 파몰라 수녀가 주선하여 전후 난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의 하나로 세탁소를 개설하였고, 가까운 청학동 교회 내에 수용된 전쟁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녀 2명이 더 파견

되었다. 이 세탁소에서는 부녀자, 전쟁 미망인과 함께 미군 부대의 옷가지를 가까운 청학동 냇물에 가져가서 빨래하는 일을 했다.

영도 분원 파견에 대하여 수녀들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음을 일기에 적고 있다.

1951년 1월 26일 (부산) 영도 수녀원은 요즘 빨래로 매우 바빠서 수녀들이 도우미로 어제 둘이 나가셨다.

27일 오늘은 영도에 도우러 갔던 수녀 두 분이 귀가했다.

28일 오늘이 육순 주일(부활절 약 60일 전에 오는 주일)¹이다. 어느덧! 미군의 빨래를 하므로 언어가 큰 문제다. 그래서 파플라 수녀가 영도를 가시기로 하여 우리 식구는 또 하나 줄어서 협소한 장소를 생각하면 그도 아무렇지도 않으나 수녀들이 다 모이질 못한 우리 심경은 적막을 느끼게 된다.

1_ [사순부활] 사순 전례의 상징: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은 처음부터 하루도 틀림없는 계 40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 목요일부터 40일 이전의 주일이 사순절 첫 주일이었으나 주일에는 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5세기에는 성삼일 중 성 금요일과 성 토요일까지 합쳐 36일로 우선 정해 놓았다. 일년은 365일인데 십일조를 바치는 정신에서 일년의 10분의 1인 36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순 첫 주일 이전 나흘을 더 합산, 오늘처럼 재와 수요일부터 계산하여 40일이란 수를 맞추었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6세기에는 현 사순절 이전의 세 주일을 중요하게 보아, 십자리 수에 맞추어 오순, 육순, 칠순 주일이라 일컬었다. (https://pds.catholic.or.kr/pds/bbs_view.asp?num=1&id=11682&menu=4801/2026.01.12.)

3. 부산 포로수용소 교리봉사(1951-1952)

부산 피난 시절에 본회는 교회가 필요로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은 모두 응답하였으며 그중의 하나가 포로수용소 교리봉사이다. 전쟁 포로로 잡혀 와 수용소 생활을 하는 이들 중 몇 안 되는 예비자들이지만 수녀들은 두 명씩 파견되어 이 소수의 예비자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었다.

“1951년 1월 25일, 기(H. Craig) 신부님은 포로수용소에 계시면서 포로 여자들을 위하여 수녀들을 원하셔서 오늘 데리러 오셨다. 부원장(강성호 베드로) 수녀님은 콜 수녀와 함께 수용소에 가시었다.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두 수녀가 가기로 정하시었다”

1952년 1월 5일 기 신부님께서는 수용소에 가는 수녀들에게 아침부터 와서 일해주기를 원하셔서 오늘부터 아홉 시에 출동하였다. ...



부산피난시절에도 교리 봉사를 쉬지 않은 수녀들

2월 7일 오늘도 두 수녀는 아침 일찍 포로수용소에 출근하여 저녁에서야 돌아왔다.

4월 26일 일 년 반이나 넘도록 포로들을 찾아 주었으나 겨우 4명의 영세자와 15명 가량의 예비자를 가졌을 뿐이다. 오늘은 그 4명의 영세자를 위하여 오후에 두 수녀는 모든 준비를 해서 그에게

다녀왔다. 싸늘한 적색(赤色) 포로 중에서 영세자가 많기를 바라
는 것도 또한 무리라고 할지!

8월 23일 포로들이 머지않은 날에 석방될 것 같다고 하여 이동이
자주 있는 관계로 매주 1회씩 가던 수녀들은 잠깐 중지하여 다시
소식이 있을 때까지 안 와도 좋다고 소식이 와서 오늘은 가지 않
았다.

8월 23일 이후로 수녀들이 포로수용소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다
시 갔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수용소 포로가 풀려날 때 포로 가
운데 젊은이 6명은 동대신동 분원에서 보호하면서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 남자 포로수용소 출신 4명이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중 1
명이 사제가 되었다.

4. 부산 메리놀 병원 본원(1951-1957)



메리놀 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처치중인 수녀

1951년 3월 19일, 한국 전쟁을 피해 일본에 가 있던 메리놀 수녀회 수녀들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메리놀 병원을 재개하였다. 같은 경내에 거처하던 본회 수녀들은 그때부터 병원 약국과 진찰실에서 일했고, 왕진 동행과 원목 활동도 했다. 그뿐 아니라 부녀자, 어린이, 환자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하루 수천 명에게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도 맡았다.

1953년 6월 23일, 본원을 동대신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대청동 본원 건물을 본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병원 규모가 확대되고

메리놀 수녀회 수녀들의 숙소가 좁아지자, 본원 건물을 메리놀 수녀회에 넘기고 동대신동 본원에서 병원차로 통근하였다. 1955년에 본원이 서울로 이전한 이후에는 보육원(부산 아이들의 집)에서 출퇴근하였다.

대청동 본원 식구들이 동대신동 본원으로 이사 후 대청동 본원에 남게 된 수녀들이 본원과 어떻게 왕래하며 생활했는지 본원 일기에서 볼 수 있다,

1953년 6월 23일 좋으신 우리 어머니님(강성효 베드로 원장 수녀님)과 사랑스러운 동생들이 안 계신 이 집은 어찌도 이렇게 쓸쓸하고. 그러나 모원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몇몇 수녀는 집안 일 정돈을 하던 중 (동대신동) 모원(본원)에 가셨던 코르(클) 수녀님이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정오 때 돌아오셨다. 오후에 어머니님(원장 수녀님) 주교님께서 찾으신다고 안드레아 수녀와 같이 잠깐 다녀가셨다.

26일(금) 별일 없이 아침부터 바쁜 오늘. 어머니님 부탁으로 안드레아 수녀 오셨다가 이사 갈 때 못 신고 가셨던 큰 장 오늘 신고 가는 미군 트럭 신세 지고 가셨다. 영원한 의탁인 우리 천주 어머니님 축일(설립 기념일) 지내려고 코르 수녀님과 여러 수녀 희색만편(얼

를 가득히 기쁜표정이 떠오르는 모습) 하여 모원으로 가고 여기는 다섯 수녀만 남았다.

27일(토) 우리 주보 대축일. 아침 일찍이 병원 수녀들까지 모원에 미사 참례하러 가시고 한 수녀만 남아서 서투른 제의방 일하느라 떨었다. 오전 8시 30분경에 병원 수녀들 안 주교님(평양교구장 서리 안 케를 몬시뇰) 차로 돌아오고 저녁에는 또 4.5인 수녀만 남고 모원으로 갔다.

28일(일) 일기가 좋지 않아 주일 반 교리는 없었고 내일 지내야 할 어머니 축일을 병원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오늘로 당겨 우리 작은 딸들은 사랑과 감사와 기쁨에 넘쳐 어머니 앞에 모여 마음껏 축하를 드리고 하룻밤을 모원에서 지내고 이 집은 코로나와 플룸바에게 맡겼다.



메리놀 병원 직원들과의 단체사진

5. 부산 동대신동 세탁소 (1951-1953)

영도 청학동의 냇물은 빨래를 하기에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미군 부대의 사정과 피난민들의 생활 변화, 그리고 물 사정을 고려하여 청학동에 세탁소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51



미망인 양재소: 전쟁 미망인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고아와 노인들을 돌봄

년 8월 2일에 세탁소를 동대신동 94번지로 옮겼다. 동대신동에서는 세탁 일뿐만 아니라 미망인양재소도 운영하였고, 노인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등 피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사업을 함께하였다. 1953년 6월에 본원을 대청동에서 동대신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세탁 일을 그만두었다.

1951년 8월 2일 영도에 있던 수녀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함께 모이기로 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 선생 소개로 식산 은행²차를 얻어서 영도 이삿짐을 전부 실어왔다. 수녀들은 내일 오시기로 했다.(대청동 본원 일기에서)

8월 30일 본래 활동력이 풍부한 파플라 수녀님은 가만히 계시기 보다는 무슨 사업으로 모원을 도와 보고 싶다고 하여 다시 허락받으신 후 오늘 베스 캅플 신부님을 면회하러 다녀왔다.

2_ '식산은행'의 정식 명칭은 '조선식산은행'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918년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조선(한국) 보다는 일본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자원 수탈과 산업 통제를 위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2월 상호가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됐으며, 1954년 '한국산업은행'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자산을 양도한 뒤 해산되었다.

6. 부산 동대신동 본원(1953-1955)



부산 동대신동 수녀원

1953년 6월 1일, 평양교구장 서리 안 캐롤 몬시뇰은 본회가 운영 하던 세탁소와 인접한 동대신동 3가 41번지의 가옥 1동을 60만 환에 매입하여 본원과 수련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남하한 지 3년 만에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게 된 회원들은 비록 작지만 무엇보다도 전용 경당이 생겨서 기뻐하였다. 당시 수녀들은 수련

소 이삿날과 새집에서 지내는 기쁨을 1953년 6월 일기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1953년 6월 22일(월) 천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원장 수녀님의 많으신 노력으로 6·25 이후 부산에 피난생활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하시고 지금 새로이 수련소를 장만하시어 수일 전부터 수리하는 중이었으나 다 되지 못한 새집으로 원장 수녀님과 앙네쓰(앙네스) 수녀, 클라라 수녀, 안드레아 수녀 청원자들은 메리놀 수녀원 집을 떠나 자기네들의 집 '수련소'로 이사 왔다.

27일(토)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것저것 구석구석 아직까지 정돈되지 못한 새집에 기분을 겨우 큰 것만 손질하였다. 복잡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 회의 후보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축일에 사베리아 수녀 에우(에우카리스타) 수녀, 아가다 수녀는 일 년 허원을 새로이 밟고 창미사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기쁘게 지냈다.

1953년 7월 16일, 청원자 5명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수련식을 거행하여 수련소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본회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수녀들은 본회의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녀들의 교육 문제에도 눈을 돌렸다. 그리하여 부산으로 피난해 온 숙명 여자 대학교에 수녀 2명 변 헬레나(대옥) 수녀,

김 에우카리스타 수녀와 지원자 1명이 입학했다.

그 무렵 메리놀 병원에서 거처하던 평양교구장 서리 안 캐롤 몬시놀이가 사정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수녀들은 3개월 정도 살던 동대신동 집을 안 몬시놀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가까이 세탁소로 사용하던 집을 증축하고 뒷집을 한 채 더 전세 내어 이사를 했다. 좁고 불편했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만족감으로 양로원을 수리하고 부엌을 넓히는 등 공사를 이어 가며 어엿한 본원과 수련소의 모습을 갖추었다. 마침내 성당 증축 공사를 마치고 복자 축일인 9월 26일에 축성식을 거행하며 감실에 성체를 모셨다. 얼마 뒤 이웃에 살던 국회의원 가족이 이사를 가며 집을 내주어 2월 16일 수련소는 다시 이사하였다.

이 무렵에는 폐결핵과 장티푸스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녀들이 속출하였다. 그런데도 때마다 성탄 카드, 어머니 날 카드, 편지지 등을 다양하게 주문받아 카드 그림을 그렸고, 주문량이 많고 마감이 임박한 때는 밤늦도록 작업을 계속하며 수천 장의 카드를 그려 냈다. 메리놀 병원에서 사용하는 봉투 만들기 역시 수련소 일감 중의 하나였다.

7. 성모 보육원(현재 아이들의 집, 1954-현재)



전쟁과 가난으로 버려진 영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성모보육원 개설

1954년 3월 8일, 메리놀 병원 원장 멜시 수녀가 쌍둥이 여아를 데리고 와서 돌봄을 부탁한 일을 계기로 본회는 보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해 9월 1일, 본원 가까이 동대신동 3가 94번지에 전쟁과 가난으로 버려진 영아들을 위한 성모보육원을 개설하였고 지원자들과 수련자들이 보육원 일을 조금씩 도와주었다.

1954년 3월 8일(월) ... 메리놀 병원 문 앞에 내어 버린 여자 쌍둥이를 댈씨 수녀님께서 아이를 기르라고 우리 원장 수녀님께 부탁하신다. 사실인즉 원장 수녀님의 계획은 집만 구하시면 이런 불쌍한 어린아이를 돌볼 의향을 가지고 계셨지만 구하는 집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기다리시던 중. 벌써 선발대로 쌍둥이 아이를 받게 되었으니 재촉이 심합니다.

3월 12일(금) 앙네스 수녀 어머니 회갑이 내일이므로 어머니를 축하하시러 오늘 아침 차로 서울 가셨다. 아버님의 임종을 못 본 수녀라 어머니의 기쁨에나 참석하러 가셨다. 우리 쌍둥이 아이들 영세하였다. 본명은 플롬바와 앙네스이다.

9월 3일(금) 오늘은 첫첨례 육. 참미사를 드렸다. 플롬바와 앙네스도 파플라 수녀님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저녁 후 원장 수녀님과 서원 수녀님들은 이사 간 집에 다녀오셨다.



성모보육원: 동대신동, 건물

9월 5일 파플라 수녀님은 마침내 집을 구하기 시작하여 오늘도 동대신동에 집이 있어서 보러 가셨다.

9월 23일 오늘은 파플라 수녀님과 아네 수녀님 두 분이 또 다시 분원으로 나가셨다. 며칠을 안 계셨지만, 막상 이사 가고 보니 펄도 집안은 쓸쓸했다.

보육원은 1961년 1월 25일, 영아원' 인가를 받았다. 현재 위치한 반송2동에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것은 1979년이다. 19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줄기 시작했다. 반면에 전국에서 장애 영아들을 수용할 곳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회는 성모보육원의 목적을 장애 영유아 시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수용과 보호는 물론 어릴 때부터 물리치료에 집중하여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지체장애영유아의 치료 및 생활보호시설로 해운대구의 인가를 받았고 시설명도 '성모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집'으로 변경하였다(설립 당시부터 1988년 11월까지 1,800여명의 원생을 배출함). 아이들의 집 사도직 목표는 수용 아동의 잠재능력과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인간다운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8. 부산 서대신동 천주교회 분원(1957-현재)

메리놀회 권(J. Connors) 신부의 초청으로 신설된 서대신동 천주교회 분원에 대한 기록은 1957년 1월 8일 자 본원 일기에 이 아네 수녀와 김 사베리아 수녀가 임명되어 9일에 부산으로 출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당시 서대신동 분원일기가 없어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50년사』(321쪽)를 기준으로 신설 일을 1957년 1월 10일로 잡는다. 본당 파견초기 수녀들의 일상을 1957년 대신동 분원 일기(1957년 일기 분원명은 ‘부산 대신동 분원 일기 혹은 서대신동 분원 일기’로 혼용하여 표기하였음)에 이렇게 적고 있다.

1957년 2월 1일 금요일, 두 수녀 오전 중에 구제품 정리하고 변신부넙 차로 이사하다.

2월 2일 토요일 성모추결례 첨례일(주님의 봉헌 축일)이다. 초축 성하든 예식이 있었고 성모성심회 입회식이 있었다.



부산 서대신동 성당: 미군 부대 세례식 후 단체사진

2월 3일 일요일 전과 같이 미사 3대 있었고, 오후 2시에 성체강복이 있었다. 부원장 수녀님과 글라라 수녀님도 같이 점심하였다.

2월 11일 성모성심회 처녀 셋이 와서 하루 종일 객실 청소해 주었다. ...

3월 3일 일요일 오늘은 성심회 주일이다. 아녜 수녀님 성심회 지도하고 돌아왔다.

3월 17일 토요일 부인회 총회일이다. 두 수녀 참여하고 돌아왔다.

4월 6일 토요일 영세 준비로 분주히 지낸다.

4월 12일 금요일 본당은 공소 찰고로 대 분주.

부산교구와 수도회 간의 서대신동 파견 협약은 1989년 4월 20일에 이루어졌다(당시 총원장 이영자 글로리아 수녀). 이 분원은 남한에서 세 번째로 설치한 분원으로 성당 뒤로 구덕공원과 체육관이 있고, 당시에 공동 단체와 교육 기관이 많은 주택 지역이었다.

1970년대부터는 본당 소속 마리아 유치원에 원장 수녀를 파견하였다. 김 로사(경숙) 수녀가 파견된 1980년대 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적령기 아동 40명을 모집하여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후 12시 30분-3시) 정규 유치원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본당에서는 물론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유아교육에 힘썼으며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9. 서울 후암동 학생분원(1953-1955)

1953년 서울이 수복되자 부산으로 임시 이전했던 주요 정부 부처와 각 대학이 서울로 돌아갔다. 숙명여대에 입학한 학생 수녀 2명과 지원자 2명도 9월 3일, 서울 후암동에 셋집을 마련하고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이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수련소 내에 큰 방을 하나 내주어 1954년 4월 10일에 그곳으로 이사하였다. 이후에도 지원자 8명을 입학시켜 사도직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머물던 수녀들과 지원자들은 얼마 뒤 샬트르 성 바오로회 용산 수녀원 3층으로 이사하였으나 오래 있을 수 없어서 흑석동 오 다위 수녀 언니의 집 2층으로 다시 옮겨 갔다. 이때 명수대(현재 흑석동) 본당 주임이었던 이경재 알렉산델 신부가 학생 수녀들이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 하는 딱한 사정을 알고 본당 입구에 있는 집 한 채를 쓰도록 하여 1955년 1월 15일 학생 수녀들은 드디어 안정된 거처를 얻게 되었다. 학생 수녀들은 어려운 생활 중에 많은 은인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서울학생 분

원 일기에서 볼 수 있다.

1953년 9월 3일 새벽 시간에 일어나 준비된 보따리(보자기)를 모두 싣고 역으로 나갔다. 어머님(강성호 베드로 원장 수녀님)과 파블라 수녀님은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셨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어머님 마음의 불안을 생각하는 어린 딸들의 마음은 차에 올라 서울역에 내릴 때까지도 그 침울하고 초조한 마음이 안정되지를 알아 마음으로부터 미소를 지어보지도 못한 채 캄캄함 밤의 서울을 대하였다. 불쌍한 우리 어머님... (주여, 어머님에게 모든 번거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성총을 풍부히 내려 주소서.) 밤 9시가 되어 고로나를 찾아 들어가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10시에 피곤한 다리를 폈다.

9월 10일 집을 옮길 마음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오직 어머님(총원장)의 소식을 기다릴 뿐 별로 공부도 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우리로서는 그 이상 더 반가울 수 없는 어머님의 소식이 날아 들어 왔다. 모두 환호의 박수로 맞이하였다. ...

9월 15일 아침 미사 후 비야로부터 어머님의 옥서(편지)를 전해 받았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주여, 우리 엄마로 하여금 크고 작은 그 모든 십자가. 당신 원하시는 그대로 용맹이 달게 받아 지고 나가게 하소

百手(日)

수원여자대학교 헬렌여자대학에서 수녀로 일하며

수녀로 일하며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百手(日)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百手(日)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百手(日)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百手(日)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百手(日)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에서 수녀생활을 하며 수녀로 일하며

고려여자대학교

서울 후암동 학생분원 일기 중

서.) 어머니를 그리는 다섯 마음, 불쌍한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다시 보따리를 꾸려 후암동 집으로 이사! 정원경치가 좋고 고요하니 더욱 어머니 집이 그립다.

9월 21일 내일이 추석 명절이라고 한다. 엄마가 소고기 좀 사 보내주시고 헬레나 수녀 삼촌 덕에서 사과 한 상자 보내주셨다. 부산 어머니께서는 오늘쯤 또 얼마나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계시실지!

(어머니, 저희들은 이렇게 기쁘게 또 잘들 지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
시고 염려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1954년 4월 6일 코르 수녀, 유카리스타 수녀, 바오로회(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원 원장 수녀님 찾아뵙고 집 걱정하였더니 천
만뜻밖에도 당신 수녀원의 큰 방 하나 주실 의향으로 관구장 수녀
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며 이를 후에 와보라고 하셔서 다시 새
로운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4월 10일 아침 일찍 이사하였다. 백 선생님의 호의로 추력(트릭)
하나 얻어서 편히 잘 되었다. 천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 아이를 가장 좋도록 안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
게 느끼며 그저 무한한 감사와 더욱 강한 의탁심으로 가득할 뿐이
었다. 서포에서 해산한 이후로 아주 잃었던 침대 생활을 다시금
규율 있게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힐다 어머님께서 떡 사다 주셔서 낮에는 잔
치하였다. 로사 수녀원에 입회하였다.

4월 11일 바오로회의 지원자들 말아 보시는 데꼴라 수녀님께서는
어머니적 관심으로 모든 것을 보살피 주시어 무엇이든 감사드려
야 할지 그저 침묵과 겸손으로서 겸손 되이 그 모든 호의에 응할

뿐이다. 원장 수녀님께서 반찬 잔뜩 보내주시고 마리아 이(李) 수녀님께서도 다녀가셨다. 그저 한 가지, 틀 때문에 좀 불편을 느낄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쯤의 희생이야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랴!

당시 본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수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학비 대부분을 메리놀 외방전교회 안 캐롤 몬시놀이가 부담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회원 양성은 국내뿐 아니라 60년대 이후로 로마, 독일, 미국, 필리핀에서도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³

3_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50년사』,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편찬위원회, 162쪽 참조.

10. 서울 흑석동 본원(1955-1964)

서울이 수복되고 국내 정세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부산에 피난 와 있던 학교 및 기타 기관들이 서울로 올라갔다. 수도회 역시 학생 수녀들을 서울로 보내고 1954년 말부터 수도회의 장래성과 회원들의 교육 문제를 고려하여 본원의 서울 이전을 계획하고 여러 차례 서울을 오가며 마땅한 집을 찾아보았다. 허 코오르 수녀는 학생 수녀들의 숙소에 머물며 집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곤란으로 본원 이전을 미루고 있던 시기에 평북 의주 출신 은인(이기정, 박덕현)이 서울 흑석동 본당과 가까운 2층 목조 건물[영등포구(현 동작구) 흑석동 186-4] 한 채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45만 원을 전액 부담하여 1955년 4월 19일, 본원을 서울로 이전했고 장선홍 라우렌시오 지도신부도 함께 왔다. 당시 회원은 총 39명으로 서원 수녀 20명, 수련 수녀 7명, 지원자 12명이었다. 1954년 동대신동 본원 일기에 서울 이전을 위해 집을 찾아다니던 수녀들의 모습을 보자. 일기에는 흑석동 본원 건물 매입 비



서울 흑석동 본원: 1955년 4월 19일 본원을 서울로 이전

용을 요안나 고모부라로 하였으나 사실은 이북에서 남하한 요안나의 아버지 이기정 바오로 형제가 수녀원 입회한 딸을 위해 고모부 명의로 하였다고 수녀가 증언한 바 있다.

1954년 10월 20일(수) 주교님댁 제대포와 주교님 미국 가실 준비로 바느질이 밀려 분주히 일한다. 서울 가셨던 강 신부님 오셨다는 소식에 원장 수녀님 다녀오셨다. 우리 집 문제도 될듯하다. ...

10월 22일(금) 아침에 강 신부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 집 구조

를 써 오셨다. 그 후 즉시 저녁으로 떠나실 준비와 차표를 부탁하여 저녁 9시로 원장 수녀님과 가리따스 수녀님께서도 전주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떠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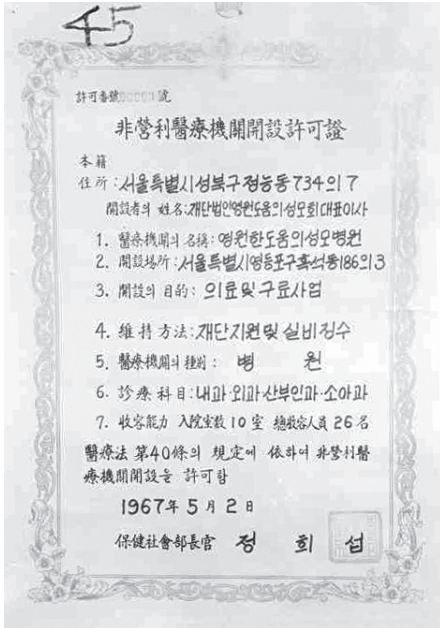
10월 24일(일) ... 원장 수녀님과 가리따스 수녀님 저녁에 일을 마치시고 서울에서 오셨다. 집에 대해서는 단념. 전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곳에서든지 그의 성의를 따르며 감사롭게 사는 것밖에 없다.

12월 7일(화) 갑자기 아침에 원장 수녀님과 파올라 수녀님 들어오셨다. 집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시고 고단하신 몸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얼마나 천주께 (어떻게) 감사드릴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께 참으로 묵언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원장 수녀님 신부님대에 다녀오셨다.

10일(금) 요안나(이의순 그라시아 수녀) 고모부께서 우리 집 사는데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450,000환(구 화폐 100원이 1환으로 1953년 2월 15일 변경)이라는 금액을 서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은혜를 갚을지. 그동안 우리가 돌보던 요한은 서울의 좋은 교우 덕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오늘 밤차로 떠나보냈다.

11. 서울 흑석동 성마리아 의원

(1955년 개설 1962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으로 개칭, 1967년 가톨릭 이과대학 부속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으로 1970년 인턴 수련 병원으로 인가 1980년 폐쇄)



영원한도움의성모병원: 비영리의료기관개설허가증

1955년 4월에 본원과 수련소를 서울 흑석동으로 이전하고, 곧이어 6월에 본원 옆에 성 마리아 의원을 개설하였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도직을 식별한 결과였다. 초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었고 수녀 1명이 약국을 담당하였다. 외래환자는 개원 첫날 21명이었고, 점차 늘어 하루 평균 60-70명이 내원하였다. 규모는 작았

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저렴하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무



영원한 도움의 성모병원(현, 흑석동성모교육원)

료 진료 혜택을 주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 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첫 병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는 흑석동 분원 일기를 통해 그 과정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955년 6월 1일 병원 방들 왁스칠 하려고 부시고 닦는다. 문짝들 뜯어다 종이를 새로 발라 보다. 가난은 하지만 그래도 좀 말쑥한 것 같기는 하다. 성심 성월 첫날! 참말로 성심께 모두 바쳐버리는 간절한 심정이다. ‘당신께서는 항상 우리 집안에 임하소서. 우리는 온전히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생각과 말과 특히 새로 시작하려는 이 작디작은 사업을 주장하소서’ 하고. 밤에 갑자기 비가 좀 뿌렸다.

4일 분도 씨 오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매우 열심히 병원 여름 문을 달다. 2층 문 바르려고 톱시 분주하다. 요새는 식사하는 세 때 도 시간이 아깝다. 실로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모두 식욕이 왕성. 식탁에는 벨라데타 수녀님의 솜씨가 박힌 단무지가 잘 팔린다. 또 담벽에 시멘트 바르다. 차차 되어 가나 보다.

8일 병원 1층 자주 뺑기(페인트), 와니스 칠하다. 저녁에 어머니 님 다 위 수녀와 같이 주교님댁 다녀오셨다. 일이 잘되었다고.

13일 윤 의사와 그 모친 다녀가셨다. 오늘은 병원 준비의 결말 일 이오, 개업의 서곡이 울리는 날이다. 내일부터는 환자를 받는다. 어머니님과 다위 수녀, 아가다 수녀 세 분은 거의 온종일 병원 집에서 지내신다.

14일 고대하든 사업 드디어 개 시. 앞치마 입으시고 다니시는 수녀님들 바라보니 대견하다. 첫날 환자 21명.

17일 비가 오니 반갑다. 우리



영원한도움의성모병원: 약국, 곽 요안나 수녀

집에 미사가 있으니 본당에 가는 수고스러운 공로 하나도 없어서
섭섭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뒤숭숭한 분심이 없어 좋다. 다위 수
녀님은 병원 꾸밀 사진들을 한 아름 안고 기뻐 병원에 나가시다.
예수 성심 대축일지만 계실 어른이 안 계셔 텅 빈 감이다. 토요일
하고 바꾸어 오후는 자유를 하다. 저녁 늦게 부산서 약집 오다.

18일 오전만 병원을 보았는데 환자가 62명 왔다 한다.

70년대 들어 최신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병원들이 신설되기 시작했
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은 의료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신
설 병원에 비해 열악하였으나 의료진을 확충하고 거액의 최신 의
료 장비를 도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수녀들은 전문 경영인이 아
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
졌다. 수도회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된 가난과 봉사
정신에 따라 수도자의 사명과 수도회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대
한 식별이 필요하였다. 수개월간 교회 장상, 가톨릭중앙의료원 관
계자와 의사, 기타 안목 있는 사회사업 담당자들과 이 사안을 협의
하고 본회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80년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병원을 폐원하고 서울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을 개원
할 때 본회 수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2. 교황대사관(1956-1980)

1953년, 북한에서 3년간의 억류 생활에서 풀려난 춘천 교구장 구 토마(T. Quinlan) 주교가 1954년 재차 내한하면서 교황사절 서리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구 토마 주교는 평양교구장 서리 안 캐롤 몬시뇰을 통해 본회를 알고 교황대사관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대사관 내에 분원을 설치하고 수녀 2명을 파견하였다. 주 소임은 대사관 주방과 집안 살림이었다. 그러나 이후 본회는 선교 수녀로서 직접선교 활동을 하는 사도직을 우선시하기로 식별하고 분원 설치 25년 만인 1980년 3월 10일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에 소임을 인계하고 분원을 철수했다.

13. 서울 종로 천주교회(1957-현재)



종로성당 : 1960. 6. 25.

1956년에 종로 본당이 설립되고 다음 해인 1957년에 이계중 신부의 초청으로 두 수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종로 본당은 종로 중심가에 자리 잡아 좁고 복잡하지만,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수녀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다. 1966년 10월 종로 분원 일기에서 수녀들의 활동을 보자.

10월 1일 두 수녀 고해하고, 오늘부터 고등부 남녀 뿌레시디움
혼성으로 합치고 헬레나 수녀 지도. ...

2일 첫 주일이라 부인회하다

4일 예비자 교리, 성당 제의방 돌보고 선생 회합에 참석.

8일 제대 회장 새로하다.

9일 노 주교님 미사와 강론 있었고, 공의회 의한 전대사 연고자
교우들 많이 오다.

10일 헬레나 수녀 병자 방문과 초상집에 연도 다녀와 예비자 교리
하고 뮈쎬스 수녀 성당 바느질 하다.

11일 일주일 전에 방문했던 압으로 앓던 병자의 장례미사가 있었
는데 온 가정이 냉담했던 중 망자의 유언으로 장례미사에 고해하
고 영성체하다 .

23일 교리 경시대회에 20여명 아동들과 다녀오다.

30일 그리스도와 철레. 성체거동에 참례 후 시상식 결과 종로에서 중등부 2, 3등 1명씩, 일반부 2등 1명, ...

31일 복자회 주최 전시회에 가셨든 수녀들, 지원자들 들려서 점심 식사하고 존슨 대통령 환영식을 테레비로 보고 가다. 아동, 예비자 교리 성가, 브레시디움, 부인회 지도. 방문 연일 충실하였음.

1972년부터 1984년까지는 본당 부설기관인 종로 유치원에도 수녀를 파견하였다. 2013년 2월 28일에는 종로 성당이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지정되었고 성당 지하에 포도청(옥터) 순교자 현양관이 조성되어 신앙 선조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과 순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는 본당 수녀 1명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본당에 소임하는 수녀 1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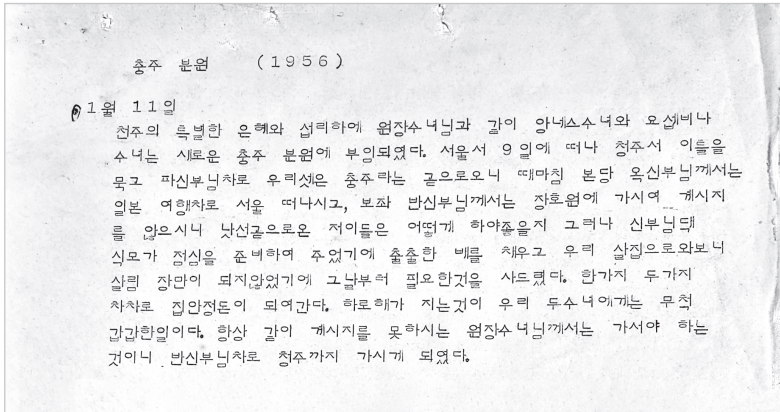


종로성당: 1984. 11.

14. 청주 성심 고아원(1953-1957)

메리놀 외방전교회 신부의 초청으로 청주 본당 부속 사업체인 성심 고아원에 수녀 3명이 파견되었다. 수녀들은 원아 60여 명을 돌보는 일 외에 청주 본당 업무도 조금씩 도왔다. 1957년, 고아원은 메리놀 외방전교회 수사들에게 인계하고 수녀들은 신설된 청주 내덕동 본당(1957년-현재)으로 전임하였다.

15. 충주 교현동(구 '충주 아현분원') 천주교회(1956-현재)



충주 교현동 분원일기

1956년 1월 10일에 충주 아현 분당(현 교현동 분당) 주임 옥보을 요셉(W. Borer, M.M.) 신부의 요청에 따라 충주 분원을 설립하였다. 수녀들은 본당의 교리 교육 및 농아맹아학교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본당 수녀들은 성심농아학교에 파견된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1981년 본당 수녀원 건물이 완공된 후부터는 현재까지 학교 수녀들과 따로 본당 수녀원에서 생활한다. 다음은 파견 다음 날 수녀들의 분원일기 내용이다.



교현동 성당 1966년 01월

1월 11일 천주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하에 원장 수녀님과 같이 앙네스 수녀와 요셉비나 수녀는 새로운 충주 분원에 부임 되었다. 서울서 9일에 떠나 청주서 이들을 목과 파 신부님 차로 우리 셋은 충주라는 곳으로 오니 매마침 본당 옥 신부님께서는 일본 여행차로 서울 떠나시고. 보좌 반 신부님께서는 장호원에 가시어 계시지 않으시니 낯선 곳으로 온 저이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러나 신부님 댁 식모(가사도우미)가 점심을 준비하여 주었기에 출출한 배를 채우고 우리 살 집으로 와보니 살림 장만이 되지 않았기에 그날부터 필요한 것을 사드렸다. 한 가지 두 가지 차차로 집

안 정돈이 되어간다. 하루해가 지는 것이 우리 두 수녀에게는 무척 갑갑한 일이다. 항상 같이 계시지를 못하는 원장 수녀님께서서는 가셔야 하니 반 신부님 차로 청주까지 가시게 되었다.



교현동 성당

16. 충주성심학교와 충주성심재활원

(1957년 파견 당시 '충주성심농아학원' 1960년 농아부를 '충주성심농아학교'로 개칭, 1961년 문교부 인가 1987년 '충주성심학교'로 개칭, 1998년 교육부 지정 정 보활용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현재)

1) 충주성심학교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 아동과의 수업

충주 야현 본당 신부로 있던 메리놀 외방전교회 옥보을 신부에 의해 설립된 기숙 시설이다. 1956년 충주 분원에 파견된 수녀들이 초기에

농아맹아학교 교육에도 참여했는데, 본회 인사이드 기록에 의하면 정식으로는 1957년 3월 2일 자로 수녀 2명이 파견되어 소임을 시작하였다. 1960년에 옥 신부가 충주 지곡 본당으로 전임한 후 맹아학교를 따로 신설하여 농아학교로 변경되었다. 1963년 11월에 기숙사 시설을 늘렸고, 1971년부터 재단법인 청주교구로부터 학교와 기숙사 운영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 초등부로 시작하였던 학교는 현재 영유아부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있으며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 인식 정도의 향상, 정부 지원 등 성장을 거듭해 왔다. 청각장애 야구부의 이야기가 2011년 영화 ‘글러브’와 MBC 다큐멘터리 기타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충주시의 인지도도 높아졌다. 충북 유일의 청각장애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협력을 받고 있다.

2) 충주성심재활원

충주성심학교 부설로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이 1971년 3월 27일에 학교 부설 ‘충주성심농아 직업보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목공, 양재 등 직업보도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1984년 10월 성심농아재활원 생활관을 건물을 지어 교육을 이어 갔다. 이후 1985-1986년에는 공문서 등에서 ‘농아원’이란 명칭으로, 1987년에는 ‘재활원’으로 불리다가, 2009년 8월부터 ‘충주성심재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충주성심재활원: 직업교육, 목공

충주성심재활원은 충주성심학교 부설기관이므로 책임자가 별도로 없었다. 그러다 수도회가 1985년 2월 6일 자로 책임자를 처음으로 파견함으로써 현재까지 충주성심학교 책임자와는 별도의 책임자를 파견하고 있다.

17. 충주 지현동 성심맹아학교 맹아원(1957-1987)



충주성심맹아학교

충주성심학교는 농아맹아들의 구령과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본회는 1957년에 처음 수녀 2명을 파견했다. 두 수녀는 교사직을 맡기 위하여 서울 국립맹아학교(현 '서울맹학교') 보통사범과에 입학하여 농아맹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 부임 당시는 성심맹아학원과 성심농아학원이 같이 있었으므로 수녀들은 농아와 맹아를 함

께 돌보았다. 맹아 학교에 소임하였던 기록은 1957년 충주 분원(지현동 본당) 일기에서 볼 수 있다.

1957년 4월 1일(월) 수일간 방학했던 학교는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모여든 농아생들은 희색이 만연하다. 누갈다 수녀는 오전 중에 학교에 다녀오고 요셉피나 수녀와 로롤라 수녀는 예비자와 첫영성체 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4월 3일(수) 농아생 2명이 새로 입학하여 학생은 적으나 두 학급으로 나누게 되어 로롤라 수녀도 오늘부터 등교. 어머니께서 청주에서 보내신 서한을 기쁘게 받았다.

1960년에 설립자 옥 신부가 충주 시내 지곡 본당으로 전임되면서 맹아원을 신설하여 이전하였다. 1975년 11월에 도지사 인(허)가를 받았다. 충주맹아학교 책임자 신부가 1983년에 암으로 선종하자 그해 3월 8일에 교구청 사무국에서 당시 충주성심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던 강 로롤라 수녀에게 맹아원을 같이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4월 6일 충주맹아학교 교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다른 구역에 있는 두 학교의 교장을 한 사람이 맡을 수 없다고 하여(권 이나시오 수녀 증언, 2018년 4월 27일) 1985년 9월 1일에 박 에 메리따 수녀를 충주맹아학교 교장으로 파견하였다. 그 후 맹아학교는 1987년 8월 4일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로 운영권을 인계하였다.



충주성심맹아학교: 목주만들기

18. 청주 내덕동(구내덕2동) 주교좌 천주교회(1957-현재)



청주 내덕동 성당 전경

청주교구 내덕동 분원은 본회가 남하하여 처음으로 설치한 분원으로 메리놀 외방전교회 사제가 사목을 맡았다. 1953년 청주 1958년 폐쇄된 고아원에 파견된 수녀들이 고아원이 속한 청주 본당 일을 주말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본회 50년사(336쪽 참조)에는 내덕동 주교좌 분원 신설

일이 1953년으로 기록되었다. 내덕동 본당에는 1957년 8월 정식으로 수녀를 파견하였다. 청주 시내에 본당이 없을 때는 청주 본당이라고도 불렀다. 초대 교구장을 지냈던 파(J. Pardy M.M.) 주교가 레지오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일찍부터 레지오가 활발하였다. 1966년 3월 일기에 그 활동 사항을 볼 수 있다.

1966년 3월 1일 비아 수녀 레지오 단원과 시대 교우 및 예비자 방문하고 데레시다 수녀 밴드 가르칠 것 준비하다. 저녁에 비아 수녀 예비자 교리하고 데레시다 수녀 밴드 연습하다.



아치에스 행사 후 기념사진, 1959년 4월 6일

2일 비아 수녀 레지오 단원과 오창 공소, 괴종 공소 다녀오고 저녁, 어린이 성가 지도 하다. 데레시다 수녀 예비자 및 첫영성체 아동 교리하다.

3일 비아 수녀 오전에 예비자 교리, 오후 시내 방문하고 저녁에 또 예비자 교리하다. 데레시다 수녀 오전에 오창 공소 다녀오고 저녁에 레지오 지도하다.

7일 비아 수녀 브레시오 단원과 오창 공소에 영세자 20명인데 사 진문제로 다녀오다.

15일 비아 수녀 레지오 단원과 시내 예비자 방문과 저녁 교리하고 데레시다 수녀 대세 받고 사망한 신자 위한 연도 부인회원과

같이 다녀오고 저녁 성가 연습하다.

18일 두 수녀 레지오 단원과 시내 각각 방문하고 저녁 레지오 지도와 밴드 연습 각각함.

29일 비아 수녀 레지오 단원과 양로원 할머니 세(대세)주고 다른 방으로 가니 이미 싸늘한 시체로 되어 아깝게 한 영혼 노치다.

...

1964년에 신설된 본당 부속 성가정 유치원에 1969년부터 수녀를 파견하였으나 1970년대 유치원이 폐쇄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유치원이 다시 개원하게 되어 1997-2010년 수녀를 파견하였다.



19. 충주 음성 천주교회(1958-1969/1984-현재)



음성성당: 첫영성체 기념사진, 1988년 6월

청주교구 음성 본당은 농촌 지역의 소도시로 공소가 4곳 있으며 신앙심 깊은 구교 신자가 많다. 이 본당에는 1958년에 수녀 1명 파견하기 시작하여 6대에 걸쳐 활동하다가

1969년 분원이 철수되었다가 1984년부터 수녀 2명을 다시 파견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 수녀들은 주요 활동은 다른 본당과 같이 예비자 교리와 첫영성체 교리, 성경 그룹공부, 봉성체, 가정방문, 구반장모임 참석, 공소미사 참례 등이며, 성모회, 안나회, 구역회, 레지오, 제대회, 성가회, 복사단, 전례단 등과 같은 단체를 담당한다. 1966년 음성 본당의 성모성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간략히 적은 분원 일기를 보자.



1985년 8월 15일 성당 보수 완공 후

5월 3일 속리산에 레지오 단원, 성가대와 소풍 갔다가 청주에 들러 쉬고 오다.

7일 교리와 성가 연습하다.

10일 도남 교리하러 갔다가 교우집 방문하고 오다

13일 본당 신부님 침례날 (축일)이라 본당, 공소 함

께 소풍가서 즐기고 저녁에 축하연을 베풀어 춤과 노래로 즐겁게 놀며 후레쉬 세례를 받으시며 만족해 하시다.

18일. 소이 공소 교리하고 여학생 교리하다.

19일 죽음을 이긴 오 주 예수 하늘나라로 개선하다. ... 여학생 파티해주다.

29일 임하소서 성신이여 ... 모든 수녀님께 축하합니다. 본당과
공소 교리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본당교우들이 1, 2, 3 등을 차지
하니 공소 교우들 입맛만 다시고 돌아가다.

31일 천상의 모후여 즐기소서 알렐루야.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 성
모의 밤 지내다.

20. 인천 박문 여자 중·고등학교 (1957-1962)

본회에서 수녀들을 파견할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인천교구가 서울교구에서 분리되기 전이었다. 당시 서울교구 소속으로 답동 본당 주임 사제이면서 박문 여자 중·고등학교 이사장 대리로 있던 임종국 신부의 초청으로 1957년에 처음 수녀 2명을 파견하였다. 이후에는 5명이 파견되어 교장과 교사로 활동하였다. 1961년에 서울교구에서 인천교구가 분리되면서 학교가 인천교구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62년에 학교 운영상의 견해차로 사도직을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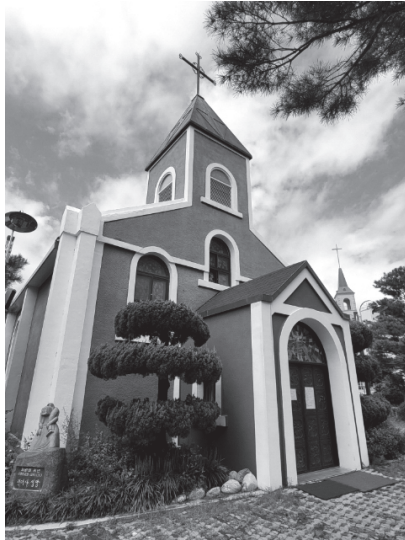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박문여고(변 헬레나 수녀)

21. 양양 천주교회(1957-1968)



양양 성당

춘천교구장 구 토마 주교의 초청으로 춘천교구 내에 처음으로 신설된 분원이었다. 당시 춘천 교구는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 지역으로 거의 모든 본당 사목을 외국인 신부들이 맡고 있어서 수녀들의 사목 협조가 매우 중요하였다. 수녀들은 예비자 교리, 레지오,

성가대, 각종 신심단체 등의 지도를 맡았는데, 예비자는 1회기에 10여 명으로 그중 7, 8명 정도가 성세성사를 받는 정도였다. 어려운 시골 본당이였으므로 수녀들의 상주는 신자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수녀들 역시 할 일이 많지 않아 파견 12년만인 1968년 8월에 철수하였다. 양양 본당 수녀님들의 부활 맞이 모습을 보자.

1966년 4월 1일 뜻하지 않은 명령! 신부님 오시여 성폭요일 성극 하시겠다고 출연자 인플 정하고 의상 준비하라고 "각본 있습니까?" "이제 만들겠어요." 아이고 어찌나 시일이 급해서 ... 회장 잡고 성가 연습하다.

2일 성지준비와 무덤 제대에 쓸 꽃 얻어 오다.

3일 두 수녀 물치 공소 다녀 오다. 매주 공소 미사 있게 되다.

4일 성극 각본 오늘 비로서 받았으니 어쩐담. 돌로로사 수녀 바느질, 리드비나 수녀 성가.

5일 성극 위한 옷 준비하다.

6일 무덤제대 꾸미고 만파(저녁기도) 후 "성만찬" 성극하다.

8일 수녀들 피정하면서 제의방 하고 오후 3시에 예절 있는 후 성
극 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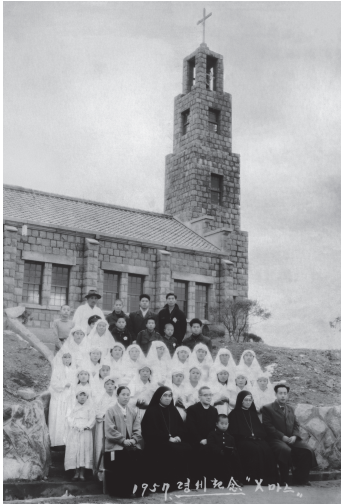
9일 만과 후 성극 제2회로 또 하다.

10일 부활 축하드립니다. 9시 미사 후 성가대와 수산 바다가에 소
풍나가다.

11일 성극에 사용한 옷 돌려주고 병자 방문하다.

12일 두 수녀 광산 다녀오고 들로로사 수녀 레지오 지도하다.

22. 홍천 천주교회(1957-1970/1980-현재)



홍천선당: 1957년 크리스마스 영세식 기념

1957년에 설치된 홍천 분원은 13년간 본당 활동을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1970년 7월에 철수하였다가 오상철 본당 신부와 신자들이 요청하여 1980년 9월에 재파견하였다.

현재 홍천 본당에는 수녀 1명이 파견되고 연봉 본당 수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분원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1인 사도직으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사목회 참석을 비롯

하여 예비자 교리, 전례, 구역회, 성모회, 안나회, 그룹성경공부, 환자 방문, 봉성체 동반, 레지오 훈화 등을 맡아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있다.



홍천성당: 1957년 8월 15일

참고자료

- 각 시기별 본회의 분원 일기
-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편찬위원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50년사』(1983)
- 본회 현황 76년(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 사도직 현황 1997. 12.(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선교국)
- 제15차 정기총회 사도직 보고서 II(202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02)2171-1500

<https://www.solph.or.kr>